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79년 10월 궁정동 총성...그후 11년 朴正熙 재조명 서적 눈길 / 「다큐멘터리 朴正熙」 사건별로 쓴 현대사 축소판 / 「소설 박정희」 민족 수난과 변신과정 초점(매일경제신문 9월18일)
- 국내 첫 語源論 개설서 나왔다-서울대 金芳漢교수 정년퇴임과 함께 펴내 / 근대언어학사 100년만의 업적...10년전부터 착수 / “단어 몇개 비슷하다고 같은 語源아니다” / 한때 한국어 우랄 알타이계설 부정 파문(세계일보 9월18일 이종수기자)
- 70~80년대 공언금지 회곡 한권의 책으로 / 김지하 「똥바다」 등 7편 실려 / 불가관정 사유도 수록 관심(세계일보 9월18일)
- 삽화가도 인세 받는다-읽는 책서 보는 책 변화에 걸맞는 시대적 추세 / 김복태 · 강우현 · 유재수씨 선두주자 / 자신 작품에 더욱 애착... 소유권 분쟁도 해소(일간스포츠 9월19일 이진기자)
- 방송원고모음집 호응 높다-TV 드라마 · 라디오 청취자 편지가 주류 / 현장감 · 친근함 곁들여 애독 / 「바구니에...」 빅히트하자 출간 본격화 / 교양강좌 「한동희 경제쇼」도 곧 발간(내외경제신문 9월19일 남진우기자)
- “문교 · 문화부 나눠먹기냐”-입법예고 공공도서관법안에 도서관계 반발 / 학교 땅 공공도서관 문교부 관장 불씨 / “모든 공공도서관, 문화부로 일원화” 주장(한겨레신문 9월20일 안정숙기자)
- 영원한 우리 노래...불멸의 베스트셀러 ‘소월詩’ / 「잔달래꽃」 이후 5백만권 추산 / 일부선 “맞춤법 고쳐 원형 파괴” / 총 150종 출간, 서평도 100편 넘어 / 북한도 詩碑 세우고 관리 신경(조선일보 9월21일 최구식기자)
- 도서관 박물관 사회문화센터로 육성 / 도서관체계 문화부로 일원화 / 설립요건 완화...지방방안 모색 / 각계 의견 수렴...보완해 나가기로(중앙경제신문 9월22일 최영주기자)

- 자)
- 閔丙山선생 유고집 발간-「哲學의 즐거움」...친지들 뜻 모아(중앙일보 9월23일)
- 베스트셀러는 광고가 만든다 / 출판업계 치열한 전쟁...「광고도산」 속출 / 작년 5백억 투입 국내 총액의 4.2%나(중앙일보 9월23일 정교용기자)
- 80년대 작품 다룬 두 평론집-이남호 「문학의 僞足」, 임우기 「살림의 문학」 화제 / 시인 15명 통해 詩 전통 발견, 「문학의 위족」 / 노동문학 · 조정래 등 평가, 「살림의 문학」 / “새 가능성 열어 대중적 기반 확산”(조선일보 9월23일)
- “온가족이 함께 책을 읽자”-동화가친의 계절 24~30일 제36회 독서주간 / 강연 · 좌담회, 서지정보 자료전 등 행사 다채 / 「공공도서관법」 ‘가을 독서계 불황’ 추세분위기 ‘찬물’ 우려도(일간스포츠 9월23일 이진기자)
- 실물경제 전문 ‘증권서점’ 화제 / 금융 · 증권서적만 취급, 수입책도 2천여종 / 국내외 각종 자료 제공... 정보센터 기능까지 / 여의도에 본사, 증권거래소 등에 매장 설치(서울경제신문 9월24일 신정섭기자)
- ‘한달 평균 1.32권 독서인구 늘었다’-전국 20세 이상 책읽기 실태조사 / 평균독서율 40%...작년보다 8% 증가 / 읽고 싶은 책 소설 · 사상 · 사회과학 · 수필順(국민일보 9월24일)
- 도서관 정책 기형입법 여론에 ‘제도수정’-문화부, ‘도서관 진흥법안’ 개선 안팎 / 전문사서직 관장 국한 등 행정주의 완화 / ‘국립중앙’ 장관 직할로...독서실 아닌 문화센터화 골격 / “2원화 아니다”...문화부 관할로 못박아(국민일보 9월24일 이은경기자)
- 출판인 의식 독자수준 못따른다-출판계 자성의 목소리 높아 / 양서간행보다 판매에 신경 / 베스트셀러 자극적이고 거의 번역물 / “좋은 책은 고정독자 있다” 사명감 필요(한국일보 9월25일 서화숙기자)
- 인기작가 100인 가장 애작가는 작품-무명설움 맺힌 데뷔작 으뜸-출판協, 독서주간 맞아 조사 / 세칭 대표작 · 베스트셀러와는 차이 / 최근 1~3년새 쓴 저작물 추천 많아(매일경제신문 9월25일 김경자기자)
- 출판協, ‘올해의 장서가’ ‘새마을 문고상’ 발표 / 한국인 월 1.32권

- 읽는다-갤럽조사 / 제일 읽고 싶은 책 현대소설(매일경제신문 9월25일)
- ‘독서주간’ 다채로운 행사-도서관協, 출판문화協 전국서 30일까지 개최 / 강연 시낭송회 열어 봄 일으켜 / 대형서점들은 특별코너 마련 / ‘서울도서전’ 5년만에 부활 내달 개최(동아일보 9월25일)
- 경제서적도 베스트셀러 이번-지난해 봄부터 서점가에 봄 일어 / 실용 · 에세이류 독자에 인기 / 경제현안 진단, 대안 제시 「경제에세이」 / 세규관련 시평 · 칼럼 엮어 「살아있는 세규」(내외경제신문 9월26일 남진우기자)
- 문학이론서 · 평론집 3권 동시 출간 / 「현대시작법」 습작기 작품사례 등 연구 / 「문학의 위족」 80년대의 문학 흐름 점검(내외경제신문 9월26일)
- 미술서적 쏟아져 나온다 / 국내외 이론전공 전문가들 대거 등장 / 번역치중 벗어나 단독저술 눈에 띄어(동아일보 9월26일)
- 한국인 한달에 책 1.3권꼴 읽는다-갤럽 · 三星生命, 성인 · 중고생 상대 조사 / 부모가 독서즐거면 자녀도 많이 읽어(서울신문 9월26일)
- ‘독서주간’ 저자들의 자전 93책-출현, ‘인기저자 추천 자신의 책 한권’ 조사 / 베스트셀러보다 첫저작 등에 애착(경향신문 9월26일 이상문기자)
- 책 한달 한권 이상 구입-한국갤럽 ‘독서실태조사’...독서인구 저변확대 / 현대 · 역사소설 · 사상順 선호 / 18년 옥살이 남파간첩 김진계씨 수기 출간(경향신문 9월26일)
- 인기저자 추천 ‘이 한권의 책’-출판문화협 ‘독서주간’ 맞아 40권 선정(국민일보 9월26일)
- 「韓國의 친구」 「활영금지」 日인이 본 우리 모습 그려 / 유학시절 체험담 소개, 「韓國의 친구」 / 64년 이후 격변기 사진집, 「활영금지」(매일경제신문 9월26일 김경자기자)
- 故 박정만시인 전집 출간-2주기 맞아 고인의 문학세계 되새겨(경향신문 9월27일 김동욱기자)
- ‘대중시’ 가을서점가 휩쓸다-대형서점 베스트셀러 랭킹 1~10위 차지 / 청소년 독자겨냥 사랑타령 / 여과 안된 감정 그대로 노출 / 올바른 문학관 심어줄 대책 시급(서울경제신문 9월27일 신정섭기자)

- 잠언집 대유행...출간 러시-“현대인에 필요한 지혜” 내세워 / 외국철학자 · 국내 문인 등 20~30종 / 깊이있는 말장난...조잡한 내용도(서울경제신문 9월28일 신정섭기자)
- ‘청소년 도서’ 출판계 사각지대 / ‘읽을거리’ 없어 기껏 성인소설 탐닉 / 청소년물 코너 · 개성있는 기획에 기대(한겨레신문 9월28일 조선희기자)
- ‘한국갤럽 한국인 독서실태 조사’ / 한달에 책 한권도 안읽어, 60% / 가장 읽고 싶은 책은 소설, 57% (한겨레신문 9월28일)
- 저자 100인이 추천하는 ‘나의 대표작’ / 출판문화협, 인기 · 지명도 기준 설정 / 84~90년 발표...문필가 거의 망라(조선일보 9월28일 최구식기자)
- 젊은 문학가 평론집 눈길 / 이남호, 「문학의 僞足」 두권으로 출간 / 80년대 문제작품 중점해부, 임우기(매일경제신문 9월29일 김병재기자)
- 가을서점가 수상작품 불티 / 동인 · 이상 · 현대문학상 주목 / 비소설 「하늘과 땅 동서가 하나로」 스티븐 호킹 과학서 등 인기(조선일보 9월29일 최구식기자)
- 美 시드니 셸던 소설 중복출판극성 / 같은 원작에 제목 멋대로 붙여(중앙일보 9월30일 정교용기자)
- 「20세기 미술의 모험」 완역본 국내출간 / 미술계 사건 시대순으로 도판과 함께 수록(일간스포츠 9월30일)
- ‘도서전시회’ 4년만에 부활 / 664사서 20여만종...전자출판장비도 선비(중앙일보 10월5일)
- 서울도서전 4년만에 부활-출판산업 사회적 위상 제고 / 80개사 20만종 독자유치 / 저자와의 대화마당 설치 / ‘전자출판플라자’ 등 코너 꾸림(내외경제신문 10월5일 남진우기자)
- 「韓國의 민간공예총서」 나온다-도서출판 미진사서 내년 계획 / 86 · 88행사로 미술열기 확산... 자신감 얻어 / 용도 · 제작방법 등 전30권 구성(한국일보 10월6일 박래부기자)
- 조계종 「역대중정법어집」 출간-正休스님 「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...」 펴내 / 성철 등 여섯스님 간략한 일대기와 함께 / 깨침과 삶 쉽게 재해석(한국일보 10월7일 이기욱기자)

- 자)
- 자녀는 주인공...엄마는 작가-「엄마가 쓰고 그린 그림책」 전13권 출간 / 주부 13명 뜻 모아 각자 1권씩 / 물감 · 색종이 · 돌 등 다양한 삽화기법 눈길(조선일보 10월7일 이선주기자)
- 서울도서전 5년만에 부활 다채로운 행사 / 11~17일 ‘대화마당’ ‘독서상담실’ 등 기획(중앙일보 10월7일 정교용기자)
- 금융관련 연구논문 42편 묶어-5년간 발표된 43인의 역작 「韓國의 短期金融市長」 출간 / 자본개방 등 환경변화 대응책 모색 / 구조개편 따른 생존전략도 / 일반론 · 정책 · 단자 등 6부로(서울경제신문 10월8일 신정섭기자)
- 산맥고유명칭 풀이한다-“우리 지명 되찾자” 박용수씨 「산경표」 출간(스포츠서울 10월8일 류창하기자)
- 한글사용 ‘길잡이 책’ 쏟아져 / 한글날 맞아 「맞춤법사전」 등 출간 / 「표준어사전」 틀리기 쉬운 말 차근차근 바로 세겨 / 「바른 말 바른 글」 잘못 쓴 문장 예로들어 자세한 설명 / 「한국어의 발전방향」 학술언어로서의 가능성 집중 모색(동아일보 10월8일 김차수기자)
- “日 가나는 또하나 한글” 화제-在日 崔權權씨 연구서 출간 / “우리 자음 변화서 응용” / 日語 원형 神大 글자도 형태유사(조선일보 10월9일 박해현기자)
- “어른 본받으며 살수가 없다”-청소년 글 분석서 「불안은 희망만큼 크다」 발간 / “좋은 성적 강요없는 가정 불랑배 없는 거리 됐으면...”(조선일보 10월9일 박두식기자)
- 제주출신작가들이 한권의 소설집 펴내-「숨어서 쓴 섬나라이야기」 문단에 화제 / 제주민의 정서와 특성 그린 중 · 단편 10여편 실려 / 권력의 의한 민초들 희생과 4 · 3사건 등 다뤄 / “소외된 지방문화의 끊임없는 저항의식” 평(세계일보 10월9일 양형석기자)
- ‘단행본 시리즈’ 시대 滿開 / 전집물 세트판매 ‘종말’...날개로 살수 있어 / 「土地」 「張吉山」 등 베스트셀러로 자리 굳혀 / 출판사들 大河物작가 잡기 경쟁...아동도서도 소재개발 박차(세계일보 10월9일 신민형기자)